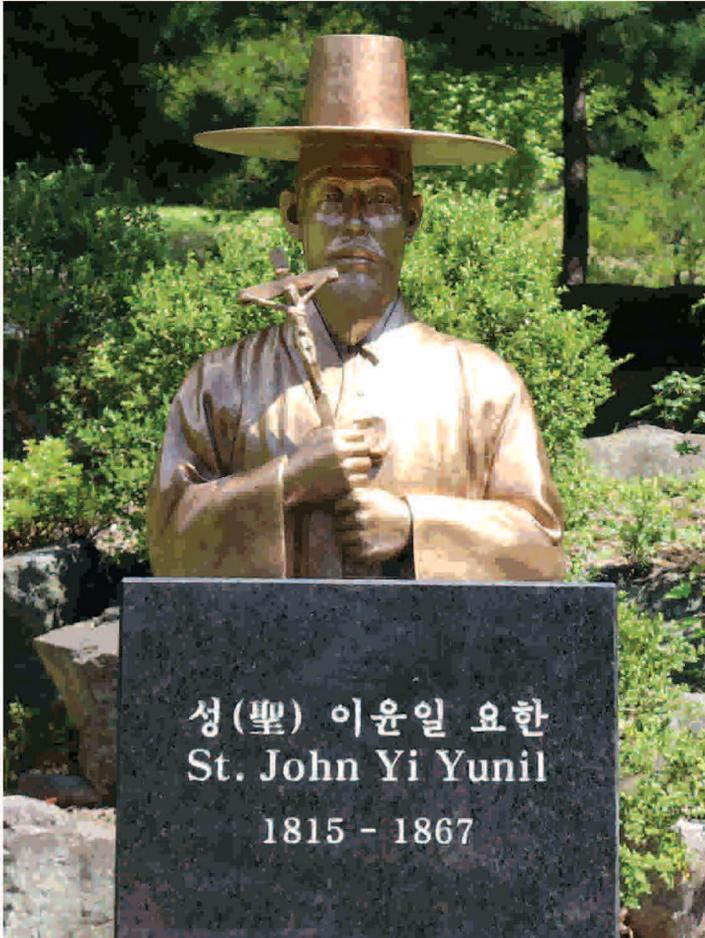




관덕정

2017년 9월 27일(통권 제81호)

41967 대구광역시 중구 관덕정길 11(남산동) 전화 : (053)254-0151
팩스 : (053)253-0666 e-mail : daegusaint@gmail.com
홈페이지 : <http://www.daegusaint.org>



이윤일 요한 성인상 (여우목 성지)

“얘들아, 그만 놀고 들어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

이 찬 우(타대오) 신부
관덕정순교기념관장

관덕정순교기념관에 새로 부임한 이찬우 타대오 신부입니다. 부임을 하고, 이곳에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중에 한 가지 떠올른 게 있습니다. ‘순교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우리를 앞선 신앙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까?’ 사제가 미사를 드릴 때 바치는 감사송 중 위령감사송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 믿는 이들 에게는 죽음이, 죽음이 아니요. 새로운 삶으로 옮겨감시오니 세상에서 깃들이던 이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에 영원한 거처가 마련되나이다.” 사실 우리는 세상이라는 곳에 놀러 나온 어린아이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엄마, 나가서 놀다 올게요!”

그리곤 우리는 집을 뛰쳐나가 골목길에서 친구들을 만나 놀기도 하고, 때로는 싸워서 코피를 흘리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자애들과 소꿉장난을 하기도 하고, 질경이를 찢어 인형에게 먹이고 자기도 먹는 시늉을 합니다. 그러다 해 질 녘이 되면 어머니가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얘들아 밥 먹어라. 그만 놀고 들어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흙먼지를 툭툭 털고는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곤 어머니에게 하루에 있었던 일을 재잘재잘 거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싸우고, 누구 때문에 기분 나빴으며, 어떻게 재미있는 장난을 쳤는지 이야기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느님, 잠깐 나가서 놀다 올게요!”

그렇게 우리는 지상이라는 골목길에 놀러 나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친구들을 만나서 놀고 싸우기도 합니다. 소꿉장난도 하면서 어떤 친구는 운이 좋아 질경이를 더 먹고 그래서 부자라 거들먹거립니다. 어떤 친구는 힘이 좀 있다고 나를 넘어뜨리고 코피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먼저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나중에 집으로 가기도 하며, 어떤 친구는 한밤중이 되어야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결국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느님 집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얘들아, 그만 놀고 들어오너라.”하고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선 아마도 하느님에게 재잘재잘 거리면서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아마도 우리를 앞선 순교자들, 신앙의 선조들은 ‘하느님을 만난다면 나는 무엇이랴 말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았던 분들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교회에서는 9월을 순교자성월이라 합니다.

순교자성월 끝자락에 ‘나는 하느님을 만난다면 무엇이랴 말할 수 있을까?’ 묵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지난 8월 25일 자로 이찬우(타대오) 신부님께서 관덕정순교기념관 제12대 관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관덕정 단청에 관한 고찰 (2)

박 현 수
전 동국대 겸임교수
본 기념관 단청 시공 설계자

4. 하트(Heart) :

심장은 일반적으로 “사랑”, 또는 “사랑하는”의 의미가 있다.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실천해야 할 계명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인류를 위한 거룩하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 즉 아가페를 의미한다. 서까래의 마구리에 사용된 이 문양은 하트 5개를 서로 연결하여 사랑으로 이루어진 그리스도교의 이상적 세계를 추구하였으며, 색채 역시 에로스적인 붉은색이 아닌 이성적인 푸른색을 사용하여 우주 창조 및 질서유지의 원리이자 신의 인간 구원 계획을 계시하는 로고스, 즉 그리스도의 의미도 함축되어 있다. 또 다섯 개의 하트 사이에 있는 5개의 붉은 점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실 때 입으신 두 손과 두 다리 그리고 옆구리의 상처인 오상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문양은 전체적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과 희생정신을 담고 있다.

5. 포도 : 그리스도교의 또 하나의 상징은 빵과 포도주이다. “받아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마태 26, 26-28)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요한 15, 5)

성경의 내용과 같이 포도주는 밀떡과 함께 성체 및 성체 성사를 상징한다. 그리고 새로운 계약이란 의미도 있다. 잔과 빵에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양을 넣으면 그리스도의 현존을 의미한다. 이 포도문양은 도리와 창방의 사이를 지지하는 화반이라 불리는 부재의 바깥 윤곽을 포도 잎으로 활용한 것으로 그리스도의 현존과 생명의 참된 의미를 상징한다.

6. XP :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Monogram(두 개의 이상의 글자를 한 글자 모양으로 도안화한 합일 문자)이다. 당시



를 조합한 ‘키로(chi-rho)’ 도안이 널리 유행했다. 당시 구원자를 뜻하는

영어 ‘크라이스트(Christ)’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Xristos)’라고 표기된다. 이때 헬라어 ‘r(랍)’은 실제 ‘p(피)’와 비슷한 모양의 ‘P’로 표기돼, 두 글자 ‘X(크시)’와 ‘P(랍)’을 합하여 ‘XP’가 되고 이것을 도안화하여 다양한 모양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X를 종려나무가지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개선, 승리를 의미한다.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상징하며 중요한 인물을 맞이하기 위한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또한, 강하고 지칠 줄 모르는 신앙으로 이방인 교리에 굴복하지 않는 순교자들의 승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종려나무가지로 조합한 XP 문양은 그리스도와 함께 순교의 승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관덕정에서는 지붕 위 높은 박공 부분에 시문 되어 멀리서 바라보아도 이 건물의 건축적 성격을 알 수 있게 하는 문양이라 할 것이다.

7. 나비 : 부활절은 교회의 전례력 중 가장 극치를 이루는 때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대상이며 희망이다. 이러한 부활절에 많이 사용되는 문양이 나비이다. 나비는 새 생명, 영광된 몸,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된다. 부활 시기의 전례 색깔은 영광, 결백, 기쁨의 상징인 백색을 사용함으로 검은 바탕에 흰나비를 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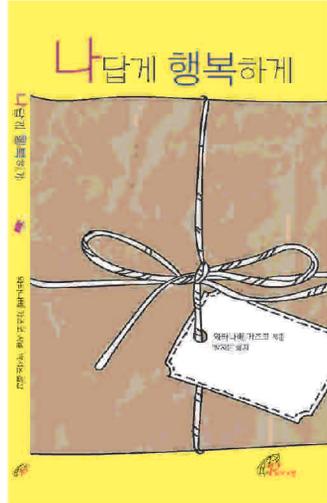
나의 삶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면

(와타나베 가즈코 지음 박지은 옮김 / 바로로팔 2017)

눈이 자꾸만 하늘로 향합니다. 맑고 높은 하늘이 참으로 아름다워서... 그 좋아하는 하늘이 보듬어주는 꽃들과 나무와 풀들이 마냥 행복해 보입니다. 더불어 하느님 안에 머물고 계실 순교성인들의 빛나는 삶도 더 깊은 감동으로 자리합니다.

이런 설렘에 빠질 때면 내 삶도 반짝반짝 빛내고 싶다는 갈망이 뜨겁게 올라옵니다. 내 삶을 환하게 꽃피우려면 먼저 나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그래야 ‘아~ 나는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이런 환경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고 주눅이 드는구나,’ 등을 알면, 빨리 그 정황을 바꾸거나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런 바람에 꼭 맞는 책이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나답게 행복하게」입니다. 짧지만 명쾌하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이 책은 포켓이나 핸드백 속에 쏙 들어가는 정도여서 더욱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저자는 아홉 살 때 눈앞에서 부친이 총탄에 맞아 쓰러지는 충격적인 장면을 본 후 정신적 번뇌에 시달리고 우울증을 앓기도 했습니다. 또 뜻대로 되지 않은 일 앞에서 많은 좌절도 겪고,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 앞에서 아픔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 시련, 아픔, 슬픔, 외로움을 받아들이는 방법을 찾아가다 보니 그 시간과 공간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주변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육자이며 신앙인이 된 와타나베 수녀님은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원하는 것이 다 주어지지 않는 삶이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삶의 길이 보이고 그 안에 사랑을 품은 사람의 행복이 이웃에게 건네는 기쁨을 상큼한 선물로 건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답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리의 사랑을 살기 위해 어떻게 나답게 행복할 수 있을까를 찾게 해주는 멋진 친구입니다.

새로 축성된 여우목 교우촌 성지

송 춘 자(마르첼리나)
홍보위원회

드높아진 파란 가을 하늘을 바라보며 이윤일 요한 성인을 묵상해 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당당하게 순교하신 성인이시여!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을 이겨내며 주님을 향한 더 큰 영광을 위해 자신을 내놓으신 성인이시여!



성인께서는 1815년 충청도 홍주에서 태어나 박해를 피해 상주 갈골에 사시다가 정해 박해 때 다시 여우목에 들어오셔서 전교 회장으로 외교인 30여 호를 천주교로 귀화시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문경 포졸에게 체포되어 1867년 1월 52세로 관덕정에서 순교하셨습니다.

2017년 9월 20일 관덕정 봉사자인 저희들은 성인께서 사셨던 여우목 교우촌을 향해 벅찬 가슴을 안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우목 교우촌을 거룩한 땅으로, 성지로 새롭게 갈무리하고 성인상을 세우고 축복하기 위해 여우목 교우촌에 모였습니다.

파란 잔디가 곱게 자라고 종전보다 더 넓어진 교우촌에서 대구대교구장이신 조환길 대주교님의 주례로 여우목 교우촌 축복 미사를 봉헌하게 됨은 큰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우촌 축복식과 성인의 성상 제막식은 안동교구장이신 권혁주 주교님께서 주례하셨습니다.

조환길 대주교님께서서는 미사 중 강론을 통해 여우목 교우촌을 새롭게 축복할 수 있었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주셨으며 성인께서 순교하신 뒤 그 유해가 대구 비산동 날뎌에서 묵리로 또 미리내로 옮겨지고 다시 대구로 모셔오게 된 경위와 현재 성인의 유해가 관덕정순교기념관 성당 제대 아

래에 모셔져 있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신앙을 본받아 참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여우목 교우촌을 성지로 조성하기 위한 작업은 1992년 8월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 이곳 중평리 14번지에 소재한 대지 262평을 매입하고 1993년 성인의 행장을 새긴 꽃돌을 세우고 2000년부터 성지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만 이곳 교우촌이 안동교구 관할이라 소유권을 안동교구에 넘겨주었습니다.

그 뒤 다시 안동교구와 협의하여 성인이 사셨던 이곳 본 동네를 여우목 교우촌으로 명명하기로 하여 개발에 더욱 노력하였습니다.

교우촌 개발에 필요한 예산은 교구장님의 허락을 얻어 관덕정순교기념관에서 지원하였으며 안동교구에서 교우촌 성역화 작업을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윤일 성인이 살았던 곳은 이곳 여우목 본 동네인데 박해시대 신앙인들의 집터가 여우목 아랫마을에서도 발견되어 안동교구에서는 1995년 교구설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선산에 묻혀있던 서치보 요셉과 서인순 시몬의 무덤을 이장하면서 아랫마을에 성역화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구대교구에서는 이미 확보되어있던 성인께서 사셨던 본 동네 신앙인들의 집터를 단장하기에 이르렀으며 오늘 이 두 곳을 갈무리하고 이윤일 성인상을 이곳 아랫마을에 세워 성인상을 축복함으로써 여우목 교우촌은 새롭게 성지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알알이 영글어 가는 가을을 맞아 새롭게 명명된 여우목 교우촌 성지가 많은 신앙인의 기도가 이어지고 성인에 대한 신심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오늘을 허락해주신 주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주님! 찬미와 감사, 영광 받으소서.

이윤일 요한 성인이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 제23회 관덕정 후원회원의 날 미사



9월 2일(토) 제23회 후원회원의 날 미사가 봉헌되었다. 장신호(요한 보스코) 보좌주교님의 주례로 사무처장 노광수(그레고리오) 신부님, 관장 이찬우(타대오) 신부님이 함께 미사를 집전하셨다.

장신호 보좌주교님은 강론을 통해 이윤일 요한 성

인의 생애와 순교 장면을 말씀하시며 우리도 후손에게 존경할 만한 굳건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었다는 증언을 들을 수 있도록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하셨다. 순교자들은 마지막 순교의 순간만을 잘 사신 것이 아니라 평생토록 그러한 삶을 살아오셨기에 순교의 화관을 받으신 것이며,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승리의 화관'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당부하셨다. 이날 평생 회원증 수여식은 보좌주교님께서 직접 해주셨으며, 미사 후에는 새로 평생 회원이 되신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 그분들에게 작은 기쁨도 선사하셨다.



■ 문경 여우목 교우촌 및 이윤일 요한 성인상 축복식

9월 20일(수) 문경 여우목에서 여우목 교우촌 및 이윤일 요한 성인상 축복 미사가 있었다. 이날 미사는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의 주례로 봉헌되었고 교우촌과 성인상 축복은 안동교구 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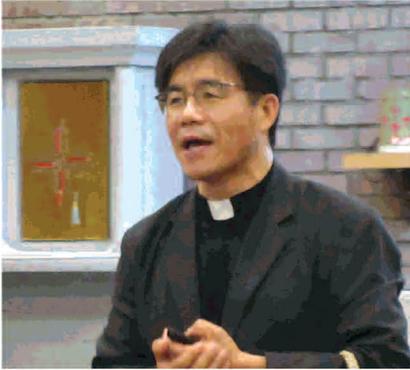


구장 권혁주(요한 크리소스토모) 주교님의 주례로 집전되었다. 이 자리에 안동교구 신부님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셨고 문경성당에서 본당 신부



님과 많은 교우들이 참석해 기쁨을 나누었다. 관덕정 제 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봉사자들은 이날 미사에 참여하고 마원성지를 순례하고 왔다.

■ 교회사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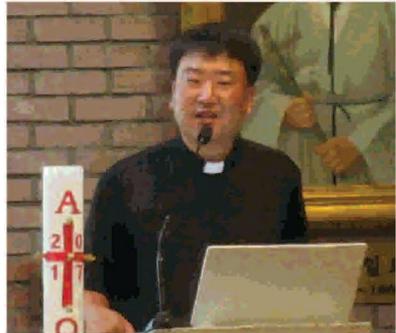


조명연(마태오) 신부님

7월 1일(토) 인천 교구 조명연(마태오) 신부님의 강의를 있었다. 신부님은 “여러분은 어떠세요? 지금의 삶, 잘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못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셨다. 행복은 우리가 하느님과 의 연관성을 찾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다고 하시며 유쾌한 분위기 속에 강의를 이끌어 가셨다. 또 현대의 순교는 사

람의 순교,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우리 각자의 가정과 자리를 성지로 만들라고 강조하셨다.

8월 5일(토)에는 전주교구 하태진(스테파노) 신부님이 강의해주셨다. 신부님은 우리가 순교에 대해 묵상할 때 순교자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친 이유에 대한 묵상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복자 이순이(루갈다)의 생애와 영성 안에서 본받을 점을 이야기해주셨다. 이순이(루갈다)가 성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자 했던 갈망을 보며 우리는 영성체 때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지 살펴보고, 성체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과 나는 얼마나 일치하고, 일치하려 노력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셨다. 그 일치를 이루어 하느님과 함께하는 기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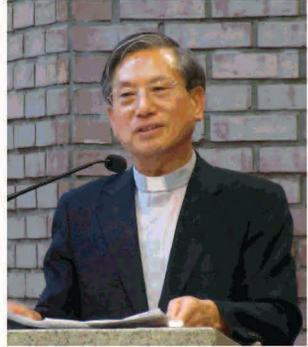


하태진(스테파노) 신부님

■ 영성특강

9월 2일(토) 안동교구 공한영(고스마) 신부님께서 특강을 해주셨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든지 고난을 만나게 되는 데 이것을 파도타기에 비유해서 말씀해 주셨다. 파도를 가장 잘 타는 것은 배이고, 배 안에는 중심을 잡는 평행수가 있는데 우리를 하나의 배로 보면 우리 마음 안에서 중심을 잡아주는 평행수가 십자가라고 풀어주셨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하셨다.



공한영(고스마) 신부님

초점을 맞추어야

■ 국내성지순례



은이성지

7월 16일(일) 수원교구 어농성지를 42명이 순례하고 주일미사에 참여했다. 돌아오는 길에 단내성지를 순례하였고, 9월 17일(일)에는 은



어농성지

이성지를 44명이 순례하였다. 은이성지는 김대건 신부님이 첫 영성체를 받은 곳이고 첫 사목지다.

여러분의 정성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6월 24일부터 2017년 9월 23일 기간 안에 후원회비를 납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평생 회원

故권재호 故김강배 故김남수 故김덕기 故김병곤 故김상무 故김성곤 故김성녀
 故김성수 故김영덕 故김용경 故김원식 故김월순 故김정환 故김창식 故김치영
 故박신애 故박옥생 故박정원 故배분조 故서철만 故성분도 故성성건 故심남주
 故안명수 故이경순 故이계근 故이기식 故이달원 故이두호 故이무준 故이상덕
 故이성관 故이수갑 故이옥조 故이임이 故이종갑 故이진순 故이호동 故임입귀
 故임재묵 故장영호 故장현중 故전천대자 故정수부 故정영화 故조무호 故조성혜
 故지점순 故최경순 故최명태 故최세형 故최일안 故황원길
 강동기 김귀옥 김명숙 김성희 김순옥 김희수 남경호 남광희
 남순태 노인만 박수현 박우현 박인규 박치현 박현일 백영란
 손이순 안경자 안말선 엄정섭 오용득 우수임 유인숙 이남경
 이복주 이연식 이영자 이원탁 이주화 이태자 전병열 정덕상
 정성호 정수길 조갑규 조봉열 최경희 최예나 함영자 허동남

가족 회원

강남규가족 강명선가족 권미정가족 권오분가족 금 찬가족 금 훈가족
 김남홍가족 김순돌가족 김영숙가족 김영희가족 김윤선가족 김은정가족
 김일성가족 김정강가족 김정현가족 김정환가족 김종삼가족 김종업가족
 김종운가족 김지수가족 김진철가족 류진춘가족 마윤희가족 문정숙가족
 박경진가족 박기석가족 박민호가족 박병화가족 박보현가족 박영자가족
 박용철가족 박용택가족 박재석신부가족 박화수가족 박화순가족 배병훈가족
 배복경가족 백덕흡가족 백은영가족 백종희가족 서난향가족 서성교가족
 손영익가족 손옥자가족 손춘자가족 신기원가족 신수영가족 신정향가족
 신혜성가족 양경희가족 양재명가족 오동혁가족 오인영가족 윤성민가족
 윤정순가족 윤진우가족 윤현경가족 이강범가족 이경준가족 이만호가족
 이성희가족 이수자가족 이시완가족 이인숙가족 이준호가족 이창규가족
 이춘달가족 이태연가족 이화선가족 임말례가족 장이순가족 장진원가족



전남숙가족 전순자가족 정계희가족 정만구가족 정명숙가족 정승일가족
 정은정가족 정화숙가족 조경실가족 조기만가족 조영화가족 주상언가족
 주재창가족 최주영가족 흥태숙가족 황수진가족 황숙희가족 황원희가족

일반 회원

강명연 고재석 곽영숙 구애자 권이숙 김경원 김분이 김삼분 김성은 김순애
 김영자 김우순 김정자 김지혜 김 현 류지연 박광수 박윤애 박인진 방해숙
 배한동 성경훈 성진현 신경숙 유선순 이윤홍 이의형 이정호 이창진신부 임윤자
 입재용 장일순 장진동 전화선 제현희 주경옥 주성일 최용훈 최원진 최필남

※ 성함이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

관덕정에서는 순교자현양사업과 순교 신심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순교 현양 운동과 각종 유물의 발굴, 조사, 연구, 전시, 보관하기 위한 노력에 후원해 주실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후원회원 가입방법

-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 053)254-0151번이나 0159번으로 전화를 주셔서 성함과 세례명, 본당과 주소지, 연락처 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 방문하셔도 됩니다!
- 관덕정순교기념관을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평생회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별다른 서류가 필요치 않으며, 명함판 사진(없으시다면 얼굴이 잘 나온 일반 사진도 가능) 2매를 준비 해 오시면 됩니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 후원회원이 되주세요!



■ 회원님께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후원회원들을 위한 생미사와 세상을 떠난 평생회원들을 위한 위령미사가 함께 봉헌됩니다. 망자가 되신 분을 평생회원으로 신청하시는 분들께는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이외에 평일미사에 위령미사를 3대 봉헌해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께 순교자 현양 및 신심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공해 드립니다. 관덕정순교기념관의 소식이 담긴 회보를 3개월마다 보내드립니다. 순교기념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 초대합니다. 연말 세금공제를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후원금 납입방법

- 납부계좌 : 대구은행 006-10-011249 (예금주 : 대구관덕정순교기념관)
 - ※ 회비를 송금해 주시는 분들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니, 송금 후 꼭 사무실로 **확인 전화** 부탁드립니다.
- 자동이체 : 거래하시는 은행에 거래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가셔서 저희 대구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신청이 됩니다.
 - ※ **자동이체 신청 후에도 사무실로 꼭 연락주십시오.**
 - ※ 자동이체 신청시 일반회원 : 월 2,000원
 가족회원 : 월 5,000원

■ 후원회비

- 일반회원 : 연 20,000원
- 가족회원 : 연 50,000원
- 평생회원 : 연회비 없이 일백만원 이상을 기탁

- 관덕정 미사안내 -

- 화요일 : 오전 10시
- 금요일 : 오후 3시(순교자현양미사)
- 토요일 : 오후 5시(주일미사)

※ 첫째 주 토요일은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